

“노년과 죽음, 삶의 시간 바라봤죠”

이지담 시인 네번째 시집 발간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역임
“문학은 동반자... 글 쓰는 삶 풍요”

“죽음과 노년의 시간, 다양한 삶을 조명하고자했습니다. 얼마 전 오랜 기간 저의 부부와 동고동락했던 분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어요. 자연스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지담 시인이 최근 시집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는 흔들려서 좋았다' (문학출)를 펴냈다. 제목이 은유하는 깊은 사유와 철학적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출판 계기를 묻는 물음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분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작품집을 발간했다”고 했다.

4년 만에 네 번째로 펴낸 시집은 울림과 차분함, 깊이를 배면에 깔고 있다. 그는 시인의 말에서 “당신의 뒷모습을 보고 슬픔으로 웃을 지어 걸어들었더니 가을 들녘에서 펼쳐진다. 가시는 길 환해졌가. 시 편이 동행한다”고 시를 읊조리듯 말했다.

평소 차분하면서도 다른 이를 배려하는 성품이라 ‘누군가를 떠난 보낸 아픔이 어떨지 가늠이 됐다. 문학 행사장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보았던 시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나주 출신의 이 시인은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회원이 360여 명 정도 되는 지역의 대표 문학단체다. 오월문학제를 비롯해 ‘작가’지 연 2회 발간, 섬진강문화학교, 문학기행 등을 진행했다.



이지담 시인

“특히 ‘작가’지는 임원들과 의견을 모아 신작으로 꾸리고 원고료를 지급해 작가들 자존감을 높이고 도록” 추진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당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작가를 예우하는 첫걸음 일 것이다.

그는 작가회의 활동을 하면서 시와 삶, 시와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하고 했다. “오롯이 작품에만 열중할 수 있는 작가는 소수”라며 “대부분 직장생활 등과 병행해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작가회의 회원은 작가들과 서로 연대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교류하면서 발전한다. 기본적으로 창작은 끊임없는 성찰로 자기와의 싸움이다”면서도 “동료 작가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작가의 정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시인은 시와 동시의 경계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지난 2014년 제22회 ‘대교 눈높이’를 수상했다. 동시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동시집 ‘낙타 가족’, ‘고민에 빠진 개’를 발간하는 등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데도 주력했다.

사실 동시를 쓰는 일은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마음이 정화됐을 때 시적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에서 동시 쓰기가 시 쓰기보다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상에서 어떻게 소재를 취사선택하느냐는 물음에 “모티브나 주제에 따라 시 그릇, 동시 그릇에 담을 작품이 달라진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번 시집은 어린이의 마음, 철학자의 마음, 시인의 마음 등이 투영됐다. 사물과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깊고 따스하다.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는 흔들려서 좋았다//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말 없는 피가 중심을 잡고 있었다// (중략)// 언제부턴가 깨부숴야 하는 이 단단한 생각들/ 비탈을 굴러 내려가/ 들뜬 부드럽고 말랑한 흙을 그리워하다가/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뿌리를 보았다”

위 시 ‘바위’는 표제 ‘바위를 뚫고 자란 나무는 흔들려서 좋았다’를 떠올리게 한다. 한때는 ‘바위를 뚫고 자란 것은 나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약함이 강함을, 부드러움이 굳센을 이긴다는 역설의 진리다. “뿌리와 바위를 하나로 묶는 건 부드러운 흙”이었음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는 글을 씀으로써 삶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나이 들이 외롭고 초조하지만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질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문학은 제 삶의 동반자이지요. 이 세상에 잠깐 다니다 왔다가 가는 삶이지만 삶과 죽음의 본질을 사유한 작품으로 이웃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자 긍심을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한편 이 시인은 2003년 ‘시와 사람’, 2010년 ‘서정시학’ 시인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고전적인 저녁’, ‘자물통 속의 눈’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과 인디 음악, 뮤지션들의 협업

나래 ‘문턱 시리즈’ 전주 듀오 출연 29일 보헤미안 공연장

광주의 ‘나래’와 전주의 ‘느린 날’, 각각 국악과 인디 음악 분야에서 활동해 온 두 팀이 한 무대에 선다. 국악콘텐츠팀작사 나래(대표 김현무·나래)이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보헤미안 공연장에서 펼치는 ‘문턱-좋은 날’에서다.

이번 공연은 나래와 보헤미안 공연장이 공동 기획한 ‘문턱’ 시리즈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객 입장하심다, 문턱을 낮춰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 중인 이 시리즈는 관객들이 부담 없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매월 1회(지난 7월부터 총 6회) 선보이고 있다.

이번 달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인디 뮤지션 ‘느린 날’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들은 싱어송라이터 송은채, 베이스기타 및 하모니카 연주자 박윤호로 구성된 듀오다.

어쿠스틱한 선율과 재즈 감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창작곡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송은채의 ‘청주 가는 버스’, ‘밤풍’, ‘도망가자 마요’, 박윤호는 ‘가을 파도’ 등이 올려 퍼진다.

협연하는 해금 연주자 김단비는 1집 수록곡 ‘추억의 온도’를 들려준다. 이외에도 나래의 ‘동가’ 등이 관객들을 만나며 나래 대표 김현무, 아쟁연주자 김하린 등도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나래는 오는 12월 28일(오후 7시 30분) ‘풍류의 스펙트럼: 그림자’라는 주제로 올해 마지막 공연을 펼친다.

나래 김현무 대표는 “‘문턱’ 시리즈는 예술인들



박윤호, 송은채로 구성된 전주 인디음악 듀오 ‘좋은 날’ (나래 제공)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음악을 발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전주 인디뮤지션 ‘느린 날’과 함께는 이번 무대는 타 지역과의 첫 번째 교류공연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일반석 2만 원(음료 한 잔 무료제공), 네이버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근대 5명창’ 김창환 선생을 추억하다

광산문화원, 추모제 성료...예술단 공연·비문 낭독 등

광주 광산 출신 국창 김창환은 근대 5명창 가운데 한 명이다. 판소리 전승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서편제 전통을 계승했다. 특히 ‘흥부가’와 ‘춘향가’를 잘 부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추모 공연 장면. (광산문화원 제공)

국창 김창환의 소리인생과 삶을 기리는 추모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광산구 대산동 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광산문화원(원장 오동근)이 주관했으며 광산구가 주최하고 삼도청년회(회장 신경식)가 후원했다.

‘국창 김창환 선생을 기리며’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삼도청년회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국악인에 대한 묵념, 광산문화원 예원 예술단의 추모공연, 고명순 시인의 비문 낭독, 이복규, 박심업 국악 공연에 이어 분향과 헌화로 진행됐다.

김창환은 판소리 창극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 최초 국악공연 전문단체 ‘협

률사’를 창단했다. 오동근 광산문화원장은 “김창환 선생의 예술 정신과 노고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며 “매년 추모제를 통해 그의 예술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그가 남긴 유산이 지속해서 발전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산문화원과 삼도청년회는 매년 추석 기간 김창환선생 묘지와 기념비 주변 벌초, 11월에 추모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연현문학상’에 서용좌 소설가

장편소설 ‘날마다 시작’... ‘방문요양’ 환자와 보호자 이야기 그려

한국문인협회가 수여하는 제43회 조연현문학상 수상자로 서용좌 소설가(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장편소설 ‘날마다 시작’.

‘날마다 시작’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이다. 소설은 ‘지은이’라는 이색적인 이름을 가진 인물이 새롭게 80대 할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소설은 존재의 의미를 비롯해 녹록지 않은 현

실, 언어의 왜곡 등 다양한 부분을 아우른다. 그럼에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날마다 시작하고 날마다 미완성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유다.

서용좌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조연현 문학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쓰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창작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30분 대한민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예술인센터2층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용좌 작가는 2002년 한국작가교수회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장편소설 ‘숨’, ‘흐릿한 하늘의 해’, ‘표현형’ 등을 펴냈다. 제33회 펜문학상, 펜문학활동상, 제8회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